

‘에코파크 순천’ 브랜드 구축... 지역경제 활기

순천 전역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하기 위한 본격적 행보가 시작됐다. 순천시가 프랑스의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MAB) 사무국에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유네스코에서 선정하는 3대 보호지역(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중 하나로,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곳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전북 고창과 신안의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내년 6월 선정 여부 결정=순천시가 제출한 등재 신청서는 순천만습지(연안습지)~동천하구(내륙습지)를 비롯, 조계산도립공원을 핵심구역(9368ha)으로, 이 일대를 둘러싼 주변 산림과 농경지, 하천 등을 완충구역(2만985ha), 더 나아가 산지습지(외룡동 ‘릴리리 뱀대기’)와 농경지 등 주민거주지역을 협력구역(6만3487ha)으로 하는 순천 전역(9만3840ha)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네스코는 내년 6월 열리는 MAB 국제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MAB·Man And Biosphere programme)은 생태계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색을 목적으로 하는 유네스코 주관의 정부 간 프로그램이다.

유네스코는 전 세계적으로 과학적 중요성과 희귀성 등 뛰어난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세계지질공원(Global Geopark), 세계유산(World Heritage), 생물권 보전지역(Biosphere Reserve)을 선정한다.

순천 전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되면 어떤 효과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주민 소득 증대 도움... 내년 6월 최종 선정

순천시 “국제적 습지 보유에 생태문화유산 다양해 선정 가능성 높아”



순천만 갈대밭

국내 최초 연안습지인 순천만습지와 내륙습지인 동천하구습지를 연계한 국제적인 람사르습지 2개소와 외룡동 일대 산지습지(0.495km)인 ‘릴리리 뱀대기’ 습지를 보유하고 있는 점, 조계산도립공원, 낙안읍성, 주암호, 송광사·선암사 등 생태문화유산이 다양해 등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순천시 분석이다.

정부는 현재 외룡동 산지습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중이며 내년에 ‘국가습지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지 여부가 결정된다.

순천시는 릴리리 뱀대기 습지가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람사르습지로 추가 등록, 세계적 습지보전의 롤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을 세워놓은 상태다.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가능=순천시는 순천 전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도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순천 전역의 문화적 특성과 우수성을 세계가 인정한 만큼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에코파크’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순천만 정원·갈대습지, 선암사·송광사, 낙안읍성 등 개별 관광지가 아닌, 순천 전역에 입혀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있다.

당장, 순천 전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특산물에 유네스코 인증 로고를 제작, 부착해 판매할 수 있어 지역 상품 경쟁력 강화와 주민 소득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안군도 지난 2009년 흑산도, 흥도, 비금도 등 신안군 일부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지역에서 판매하는 소금, 시금치 등의 지역특산물에 인기를 얻으면서 주민 소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후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신안군은 보전지역 확대지정을 요청했다.

순천시도 지정 이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를 만들고 인증 로고 개발, 지역 생산품 브랜드화 방안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면서 천혜의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 효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세계적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모델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생물권보전지역은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1982년),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2002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2010년), 고창생물권보전지역(2013년), 신안생물권보전지역(2016년) 등이 있다. 세계적으로는 120개 국가가 유네스코 MAB(인간과 생물권계획)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 기준 669개의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돼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전통시장 발길 끊이지 않는 명소 만든다

市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순천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는 활성화 방안이 마련, 추진된다.

10일 순천시에 따르면 노후화된 전통시장 시설을 개선, 지역민들이 즐겨 찾는 소풍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추진키로 했다.

순천시는 ▲역전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아랫장 야시장 운영 ▲웃장 국밥축제 연장 계획 등을 담은 2018년 전통시장 활성화 방침을 마련,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중이다.

불거리, 떡거리 등 순천 전통시장의 특색 프로그램을 발굴, 자생력 있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역전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14억3300만원을 투입, 역전얼음~대광수산 삼거리(1160m) 일대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해당 지역 내 설치된 전주이설 등이 추진된다.

아랫장 야시장 사업은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 종료되는 만큼 순천 방문화로 자리매김한 야시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예산 1억 원을 반영키로 했다.

순천시는 아랫장 번영회를 중심으로 매주 금·토요일 떡거리 야시장과 공연·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세워놓았다.

당일치기로 열렸던 ‘웃장 국밥축제’도 1박 2일 일정으로 늘리기로 했다.

순천시는 내년 9월 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2500만원을 들여 웃장 국밥축제를 열기로 했다. 국밥거리를 음식 특화거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보다 1000만원을 늘려 체험·전시행사 등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거리, 떡거리를 제공해 머물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제1회 영풍발동 어린이 기적의 축제

오늘 버블쇼·다슬기체험 등 다채

‘영풍발동’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놀이터 이름이다.

순천시의 ‘기적의 놀이터’ 1호 명칭으로, 지난해 5월 순천시 연향 2지구 호반 3공원에 들어섰다.

특이한 놀이기구 대신, 가공하지 않은 자연 소재인 돌(바위), 흙, 통나무 등을 주 재료로 활용하고 시냇물, 잔디, 언덕, 동굴, 나무 그루터기 등도 자연의 상태처럼 자연스럽게 구성된 게 특징이다.

11일 영풍발동 놀이터에서 열리는 ‘제1회 영풍발동 어린이 기적의 축제’는 덕덕동 일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700명의 함박웃음을 볼 수 있는 행사다.

어린이들은 ‘동심이 춤추고 희망을 꿈꾼다’는 주제로 열리는 버블퍼레이드, 별뿔 및 버블쇼, 바람개비 날리기, 미꾸라지·다슬기 체험, 보물찾기, 소망주 재료로 활용하고 시냇물, 잔디, 언덕, 동굴, 나무 그루터기 등도 자연의 상태처럼 자연스럽게 구성된 게 특징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13·14일 ‘깔깔깔’ 체험행사 오세요

색깔 이용 즐거운 놀이

순천시는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장천동 시민로 일대에서 ‘깔깔깔’ 체험행사를 연다.

체험행사는 색‘깔’을 사용해 ‘깔깔깔’ 즐겁게 놀이한다는 의미로, 이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3세 이상 10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순천을 대표하는 색깔을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표현하는 프로그램이다.

순천청년문화누리단은 이날 ▲순천만 갈대밭을 상징하는 노란색 부승서갈대집 꾸미기 ▲순천만정원을 주제로

초록부스를 활용한 종이벌써쌩기 ▲순천 바다를 의미하는 파란색 부스를 통한 불꽃놀이와 동물풍선 만들기 ▲순천만 칠면조 색을 주제로 한 빨간색 부스에서 모자이크 작품 만들기 등 체험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누리단은 또 행사기간 중 현장사진을 SNS에 게재할 경우 솜사탕과 즉석사진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마련키로 했다.

순천청년문화누리단 관계자는 “젊은 청년들이 어린 자녀들과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가 순천 전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등재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왼쪽부터 순천만정원내 로컬푸드 매장, 동천하구, 조계산도립공원 전경.



NPL과 특수물건만이 답이다.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최 선 규 H. 010-3605-5000